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287~317

독립 후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수립과정 연구
: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을 중심으로*

조 영 실**
(Cho, Young-Shil)

〈Abstract〉

Un Estudio sobre la Organización Nacional de República Argentina Moderna
: Enfocando en el Conflicto entre los Federales y los Unitarios

En este trabajo tratamos de investigar el proceso la constitución nacion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moderna, enfocando en la contradicción entre los federales y los unitarios. En el capítulo II, ante todo hemos definido el origen y el contexto de formación de cada ideología y partido. El centro de los federales estaba en las provincias interiores y litorales, mientras que los unitarios hacen de centro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En el capítulo III, mostramos las causas de esta contradicción histórica y tratamos de caracterizar las diferencias. Explícitamente el conflicto se basa en la distinción de la visión política e ideológica, es decir, la distinción de cómo orientar la constitución nacional de la república incipiente. Sin embargo, es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choysh00@pufs.ac.kr

inevitable referir la división administrativa histórica durante la época colonial. Al mismo tiempo no debemos faltar el conflicto de interés económico respecto al puerto de Buenos Aires. En el capítulo IV, analizamos comparando las ideas de dos intelectuales, las cuales hacen un papel importante en la organización nacional. Primero analizamos el pensamiento civilizatorio de Sarmiento, y después, demostramos el pensamiento federalista de Alberdi como origen de la constitución argentina de 1853, y de la inmigración europea. Como consecuencia del estudio, podemos llegar a la conclusión de que los esfuerzos por realizar la organización nacional no siempre estaban en línea paralela de ambos partidos divididos, sino tenemos un ejemplo dialéctico y combinatorio como el caso de Alberdi.

[Key Words: Revolución de Independencia/ República Moderna/ Organización Nacional/ Federales/ Unitarios]
[주제어: 독립혁명/ 근대공화국/ 국가수립/ 연방파/ 통합파]

Ⅰ. 들어가며

아르헨티나는 1810년 5월의 독립혁명과 1816년 투쿠만에서 소집된 최초의 의회를[1] 거쳐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탄생했지만, 공화국 초창기에

1) 최초의 의회가 투쿠만에서 소집된 것은 세 가지 이유였다. 먼저 투쿠만이 당시 라플라타연합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도로 무력봉기를 감행하던 반다오리엔탈의 호세 아르티가스 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주라는 점, 그리고 라플라타연합주의 여러 내륙 주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소집된 의회에 만일의 상황이 생길 경우 라플라타 연합주의 북군(Ejército del Norte)가 투쿠만

는 독립이 체계적인 국가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엄밀하게는 1853년에 이르러서야 명실상부한 근대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더 완전하게는 1880년을 기점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가조직화가 지체된 가장 주된 원인은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비전에서 상이한 입장이 제시되었고, 그 갈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헌정수립을 모색한 엘리트 지도층은 연방을 지향하는 연방파(fedelares)와 통합주의를 지향하는 통합파(unitarios)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노선의 대립은 독립을 위한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도 존재했으나, 독립을 달성하고 난 이후 그 갈등이 첨예화되어 오랜 정쟁으로 연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수립과정을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파와 통합파, 또는 연방파와 중앙집권파의 갈등은 19세기 아르헨티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연방파를 지방 카우디요와 동일시하고 카우디요를 국가수립을 지체시킨 장애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방 카우디요의 존재가 국가수립의 장애물이었다기보다 지방정부 수립이 오히려 아르헨티나 국가조직화의 기틀이 되었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2)]

골드만의 연구는 연방파/통합파에 관한 과거의 이분법적인 시각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지한 통합파는 국가조직화를 지지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주장한 연방파는 국가조직화에 반대하는 셈이었다는 이분법의 극복이다. 골드만의 연구는 연방파

근방에 있어서 의회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가령 골드만의 연구가 그러하다. Goldman, Noemí(1993), "Legalidad y legitimidad en el caudillismo: Juan Facundo Quiroga y La Rioja en el Interior Rioplatense (1810-1835," *Boletín del Instituto de Historia Argentina y Americana*, Tercera serie, núm. 7, 1er semestre de 1993, pp.31-58.

와 통합파의 대립을 보는 또다른 시각의 제시이다.

이 논문의 목적 또한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을 둘러싼 국가수립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두 이념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흐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이념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합의 시도가 아르헨티나 국가수립의 기저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연방국가가 된 시초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 이념의 종합은 사상가이자 법학자인 알베르디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는 통합주의적 비전을 갖고 있었으나, 1850년경에 이르러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는 연방주의와 통합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만이 현실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연방주의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1853년 헌법에 반영시킨다.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독립 200주년이 되는 시점에 19세기의 공화국수립에 관한 국내 논문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논문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강렬한 정쟁으로 표출된 지방 내륙주들의 연합이 대표한 연방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중심의 연방파와 통합파의 각각의 기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두 노선의 대립의 원인과 지향점을 구별해 보고자 한다. 외면상으로는 대립의 원인이 정치노선의 차이, 다시 말해 국가수립의 방향성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밖의 식민지시기 행정적 구분이나 항구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대립도 비중이 크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근대공화국 수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그 관점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르미엔토처럼 시종일관 자유주의자이면서 통합파인 경우도 있지만, 두 노선의 조합이나 종합에 해당하는 인물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 연방헌법의 기초를 수립한 알베르디의 경우가 그러

하다. 알베르디의 주요 사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르키사로 하여금 아르헨티나를 연방국가의 수립을 도모하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고찰은 19세기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시도들이 연방파와 통합파로 양분되어 끝까지 평행을 달린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양상을 띠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Ⅱ. 연방파와 통합파의 형성과 발전

1. 연방주의와 통합주의의 형성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자면 중앙집권주의는 모든 정부조직이 중앙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중앙집권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막론하고 전국에 걸쳐 입법부와 행정부를 단일화한다. 이에 반해 연방주의는 지방주와 지역 권력들의 자발적인 연합 또는 연방화에 기초를 둔 정부형태로서, 이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권능을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위임한다.

이 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통합파(Unitarios)와 연방파(Federales)가 형성된 배경과 초기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초창기의 경향이 독립혁명 직후에 아르헨티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변화한 바 그 전개과정 또한 살펴볼 것이다. 두 세력의 변화과정을 통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Ⅲ장에서 이들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합파는 통합주의(Unitarismo)를 지지하고 연방파는 연방주의(Federalismo)를 지향한다. 통합주의는 프랑스공화국의 모델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의 전 지역에 걸친 단일성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다. 아르헨

티나의 통합주의는 독립혁명 이전 혁명을 도모하던 이들에게서 형성되었다. 이 시기 두 이념의 대립은 모레노(Mariano Moreno)와 사아베드라(Cornelio Saavedra)의 갈등으로 대표된다.

개혁적인 성향의 모레노는 통합주의를 통해 혁명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혁명 직후에도 그의 통합주의에 대한 지지는 지속되었다. 이들은 스페인과 스페인 식민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들에 맞섰고, 이때 이들이 표방한 통합주의의 의미는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된 남미 전 지역의 단일성에 대한 모색이었다. 그런데 온건적 보수주의자인 사아베드라가 연방주의를 내세우며 모레노의 통합주의에 맞섰다. 사아베드라는 1811년 지방 내륙주의 대표들을 훈타 그란데(Junta Grande)로 소집하여 반 모레노 세력으로 결집시키고자 했다.[3)]

사실 사아베드라가 내륙주 대표들을 규합한 것은 모레노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모레노를 지지한 통합주의자는 대체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크리오요들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내륙 주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달랐고 이는 내륙 주에게는 불만의 씨앗이었다. 독립혁명 과정에서는 그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독립이 달성되고 국가헌정수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륙 주들은 그들의 자치성과 이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사아베드라가 이를 반 모레노 전선으로 끌어낸 것이다.

그런데 사아베드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연방주의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라플라타 지역에서 연방주의가 실현된 것은 반다오리엔탈(Banda Oriental)[4)]의 독립혁명가 아르티가스(José Gervasio Artigas)에 의해서였다

---

3) Floria y Carcía Belsunce(1992), *Historia de los argentinos. Tomo I*, Buenos Aires: Edic. Larousse Argentina, p.332; Romero(1996), Breve Historia de la Argentina, Buenos Aires: FCE, pp.51-52.

4) 오늘날의 우루과이 영토의 당시의 이름이다. '동쪽 강안'이라는 뜻으로, 라플라타 부왕령에 포함된 영토 중 라플라타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졌다. 오늘날의

(Hernández 2003, 1) 미국의 연방제에 영향을 받은 아르티가스는 1823년 라플라타 연합주 의회 연설을 통해 이 지역에 연방제 정부를 구성할 필요성을 주창했다.

한편 의회에서 아르티가스가 연방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 시기는 이미 모레노의 통합주의 이데올로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집권주의(Centralismo)로 변해 있었다. 이른바 통합당 역사의 제 2기가 시작된 것이다.

2. 연방주의와 중앙집권주의의 대립

이 장에서는 초창기에는 통합주의와 연방주의로 구분되던 통합파와 연방파의 이념이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통합파가 주창하는 방향성에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연방파와 통합파 사이의 강력한 대립을 유발했다. 그리고 이 대립은 1853년 연방헌법이 선포될 때까지, 더 길게는 188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연방수도 확정으로 아르헨티나 근대공화국 수립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먼저 1820년대 초 리바다비아(Bernardino Rivadavia)로 대표되는 통합파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리바다비아는 아르헨티나 단일을 도모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통합주의가 아니라 중앙집권주의를 표방했다. 그리고 이때 중앙집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정부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리바다비아는 1824년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중앙집권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여 1826년 이 헌법을 선포했다. 그러나 리바다비아의 1826년 헌법은 연방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에 따라 제헌의회는 해산되

아르헨티나의 코리엔테스 주, 엔트레리오스 주, 미시오네스 주, 우루과이, 브라질의 리우그란데두술 주, 파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었다.[5]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통합파의 궁극적인 패배이자 연방파의 승리를 지시하는 사건인 셈이다. 왜냐하면 1853년 연방헌법이 선포되기까지 1826년과 같은 중앙집권 헌법이 다시 제정되지 못했고, 1853년의 헌법이 이후 아르헨티나 헌정사에 지속적으로 존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에 있어서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연방파 세력이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로사스(Juan Manuel de las Rosas)라는 독재자가 집권하던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통합파의 본거지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통합파 대 지방주-연방파라는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였던 로사스는 아르헨티나연방을 창설하고 내륙과 연안지방 연방파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다. 먼저 로사스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아르헨티나연방이 가능했던 원인을 알아보자.

리바다비아 이후 연방파와 통합파의 대립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 후안 라바예(Juan Lavalle)와 후안 마누엘 델라스 로사스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라바예는 통합파이고 로사스는 연방파였다. 그러나 이 대립은 이후 라바예와 로사스가 두 분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위한 협약을 함으로써 종결된다. 그 결과, 1829년 로사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1829~1832)로 선출된다.[6]

1835년 내륙 주들을 대표하는 연방주의자 키로가(Facundo Quiroga)가 암살되고 난 후 로사스는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가 된다. 집권

---

5) Floria y Carcía Belsunce(1992), Tomo I, op. cit,, p.335; Romero(1996), op cit., pp.71-72.

6) 로사스의 등장의 배경과 그의 독재기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서지를 참고함. Floria y Carcía Belsunce(1992), op. cit, Tomo II, pp.13-67; Romero(1996), op cit., pp.74-88; 민만식 · 강석영 · 최영수(1993), 중남미사, 민음사, pp.259-261.

제 2기(1835~1852)에는 키로가의 죽음으로 연안지역의 카우디요 세력과 내륙지방의 카우디요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로사스는 내륙주의 카우디요들을 규합하여 아르헨티나연방(Confederación Argentina)[7]을 창설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된다.

로사스는 농장주, 염가공업자, 무역상, 목장주, 독립지주 등 새로운 세력에게 권력을 분배한다. 이에 1810년 이후 권력을 누려오던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권좌에서 사라지게 된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기반으로 한 무역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세입원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목축업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수출 모델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독재자 로사스는 유례없는 전권을 발휘하여 무력에 의한 공포정치를 행하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가수립의 위기와 혼란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 혼란과 공포의 시기는 1852년 로사스가 카세로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르헨티나연방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로사스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연방주의의 균열을 보여준다. 즉, 그는 겉으로는 연방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내륙주들의 자치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통치 방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역상과 농장주들을 위한 자유무역주의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종종 '자치주의(Autonomista)'라는 이름으로 불린다.[8] 로사스의 연방주의는 아르헨티나 연방주의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

7) 산타페,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트레리오스, 코리엔테스, 투쿠만, 살타, 후후이,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카타마르카, 코르도바, 라리오하, 산후안, 산루이스, 멘도사의 14개 주를 포함한다.

8) 일반적으로 연방주의는 각 지방의 자치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치주의에 해당하지만, 로사스의 경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자치만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연방주의와 차이를 보이고, 그런 점에서 'autonomista'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로사스 독재를 문명/야만 이분법에 나타나는 야만의 대표로 본 사르미엔토는 로사스의 연방주의를 'federalismo bárbaro(야만적인 연방주의)'라고 불렀다.

생동하는 역사의 현장임을 확인해주는 예이다.

Ⅲ. 연방파와 통합파의 비교

연방주의와 통합파는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사상이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연방파는 지방주들의 자치권을 옹호한다. 그리고 지방 주 고유의 정부수립, 그리고 고유의 헌법과 법률, 나아가 독자적인 경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통합파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 하에 지방정부가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정부형태를 지지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자유무역주의냐 보호무역주의냐의 차이로 대별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통합파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그리고 내륙 지방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한다. 이는 내륙지방은 광물, 민예품, 가죽산업 등을 제외하면 경제적 수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등의 연안주들은 농장과 목축업이 발달해 있고 교역이 가능한 도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대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로 교역이 독점되는 것에 반대하여 내륙으로 연결된 강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코리엔테스 주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로운 항해를 결합시켰고, 따라서 연방파인 코리엔테스 주정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합파와 제휴하는 경우도 많았다.

1.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

연방파와 통합파 사이의 갈등은 독립 이후 19세기 전반에 걸친 내전으로 표출되었다. 먼저 이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입장을 달리하여 양분되었다. 연방파는 내륙지방 주들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하고 각 주들의 자치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반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합파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전국에 걸쳐 헤게모니를 잡기를 원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대로 아르헨티나의 통합파는 19세기 중반에 와서는 중앙집권주의를 지향하게 되면서 중앙집권파(centrales)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자면 연방파 대 통합파는 내륙 주 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일대일 대응은 아니다. 즉, 연방파는 내륙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동시에 존재했고, 통합파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지역 간 갈등에 직면하면 내륙 주의 연방파와 통합파는 연합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두 세력 역시 서로 연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카세로스 전투 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52년 9월 11일 혁명 후부터 아르헨티나연방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사이의 대립구도로 단순화되었다.

연방주의냐 통합주의냐는 공화국 국가조직을 위한 방향성의 주요 흐름이었고, 제도적 정책의 마련이 시급했으나 두 세력 사이의 오랜 정쟁은 국가수립을 지연시켰다. 정쟁은 1852년 카세로스 전투로 연방파의 승리로 종결되는가 싶었으나 1861년 파본 전투에서 연방군을 이끌던 우르키사(Justo José de Urquiza)가 통합파의 수장 미트레(Bartolomé Mitre)에게 패배함으로써 다시 통합파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1853년 우르키사에 의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최초의 연방헌법이 선포됨으로써 정부형태의 측면에서 국가조직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2. 경제적 이해관계

아르헨티나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이는 더 근본적으로 식민지시기부터 있어왔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과 내륙지방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플라타 부왕령의 내륙지방은 외부와의 교역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필요로 했는데, 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통관세를 매기는 등 항구라는 이점을 이용해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했다.

라플라타 부왕령 시절에 아메리카로부터 스페인으로의 주요 반출 품목은 금과 은이었다. 그래서 식민본국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겪어야 했던 멕시코나 페루의 항구들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금은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고, 따라서 스페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직접 개척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밀수꾼들과 해적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구가 되었고 이는 다시 식민본국이 이곳을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 방치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자 식민지 개척이 한창이던 당시에 영국처럼 스페인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의존해 영국 산 양모를 팔고, 아르헨티나의 육류와 가죽을 사가는 추세였다. 또한 식민본국에서 유입되는 산물들은 라플라타 지역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비싸다 보니 밀수업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 통치자들은 대부분 이 밀수업의 상황을 용인하거나 존중했다. 종국에는 불법적인 교역이 스페인과의 허용된 교역과 비슷한 양에 다다랐고, 이런 상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과두계층 사이에도 두 개의 상이한 세력이 생겼다. 목장주들과 밀수업자들의 대립이 그것이다. 목장주들은 산물을 좋은 가격에서 수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요구했다. 수출품은 특히 가죽이었다. 육류는 장기간 보관할 만한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은 국제적인 수출품목이 아니었다. 한편 밀수업자들은 자유무역을 거부했다. 산물들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면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방주의를 표방한 자유무역주의자인 로사스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농장주였다. 그의 왜곡된 연방주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갈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팜파의 목축업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통한 독점적 수출을 장려하면서도 오랫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연방주의 세력인 가우초와 카우디요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3. 연방파와 통합파의 비교

II장과 III장에 걸쳐 살펴본 연방파와 통합파의 차이는 다음의 도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1〉은 형성기에서부터 로사스의 아르헨티나연방 시기를 거쳐 우르키사의 아르헨티나 연방헌법 선포에 이르기까지 두 노선이 보여준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1〉 아르헨티나 연방파와 통합파 비교

	Federalismo	Unitarismo
기원	Cornelio Saavedra(1811)	Mariano Moreno(혁명이전)
창당	1816	1816
독립 후 개념 변화	1811 모레노파 권력박탈 목적 →미국모델 따른 연방정부 (1813 Artigas, 라플라타연합주 의회)	프랑스모델의 反왕당파 투쟁 →지방주 종속의 중앙집권적 정부 (Centralismo)
국가형태	지방주의 자치권 보장한 연방정부	단일헌법 하의 중앙집권적 정부
정치이념	보통선거	이론상의 민주주의(제한적 참정권)

경제사상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liberal)
문화	전통적	유럽과의 친연성
대표지역	Provincia	Buenos Aires
리더계층	지방 카우디요, 지주계층	BA의 엘리트층
지지층	내륙주, 농촌지역 BA의 도시노동자, 염장가공 노동자	BA지주계층
구분 (분파)	①Provincia의 federales: 연안지역과 내륙(특히 북서부, 서부) 세관수입 연방화, 내륙 강 자유항해 각주 대표로 대표위원회 구성할 것 Quiroga, Urquiza	Rivadavia Sarmiento Mitre
	②BA의 federales: 일군의 BA지주계층 항구세입의 독점 · 자유무역 지지 지방주들의 정치적 평등권 반대 BA농촌의 가우초 Manuel Dorrego, Rosas	

(출처: Chiaramonte(1993), Cicardo(s/a), Hernández(2003) 및 참고문헌의 웹사이트자료 종합하여 본고 작성)

한편 리바의 〈표 2〉는 우르키사가 연방파인지 통합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리바는 우르키사를 통합파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르키사는 엔트레리오스 주의 주지사 출신으로 연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리바는 왜 그를 통합파에 넣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우르키사가 1852년 로사스의 '아르헨티나연방'에 반해 봉기를 일으키던 시점은 로사스의 폭정이 극에 달해 있었다. 즉,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연방파, 곧 이 지역 농장주들과 카우디요들, 무역상들을 제외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합파도 지방주의 연방파도 모두 반 로사스주의로 결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르키사의 봉

기는 연방파의 지지는 물론이거니와 통합파의 일시적인 지지와 기대감도 불러일으켰다. 이런 맥락에서 리바는 우르키사가 反 로사스주의자라는 사실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르미엔토와 같은 정통 통합파는 우르키사의 연방주의적 경향에 대해 우려했고 끝내 그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점을 상기한다면 리바가 우르키사를 통합파로 본 것은 반 로사스 봉기에 대한 설명일 뿐 이후 아르헨티나연방의 대표로서 우르키사의 여정을 고려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표 2〉 리바의 통합파와 연방파의 구분

	통합파	**연방파**
기본원리	자유, 공화주의	평등
적용 모델	공화정으로의 변화여건 형성 확신하지 않음 대중의 계몽 불신	모델의 변화 여건이 마련됨 대중의 역할 평가함
정치적 대표성	교육받은 계층에 제한된 투표권	제한없는 광범위한 시민권
권력구조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권력분배	권력의 탈집중화 모델
구성원	식자층 엘리트	대중
대표 인물	우르키사(내륙 대표자)	로사스(부에노스아이레스 대표자)
국가조직	지방주 통일하고 관리하는 초국가적 조직 모색	중앙정부 수립 관심 없음 (현재 누리는 힘의 상실 우려)
경제자원의 운영	부에노스아이레스 세관의 국유화	지방주 세관의 복원과 자유로운 항해

(출처: Vanina Riva, “Historia política argentina”, cap.2)

Ⅳ. 공화국수립의 주요 논제들

이 장에서는 사르미엔토와 알베르디를 중심으로 그들이 제기한 국가 수립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르미엔토의 문명화론과 알베르디의 유럽인이민정책에는 유사성이 있는데 이는 두 이론가의 사상적 배경이 자유주의와 실증주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르미엔토는 통합파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정부수립을 지지했다면, 알베르디는 연방헌법의 초안을 통해 아르헨티나공화국을 연방국가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래의 표는 19세기 연방파와 통합파의 대립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입장을 비교한 것이다. 사르미엔토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통합파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로사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익을 지키는 연방주의자라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알베르디는 통합파에서 연방주의자로 바뀜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지방주의 이익을 절충한 경우이다. 다음 장에서는 사르미엔토와 알베르디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인물별 정부형태 및 사상 비교

	정부형태	정치경제사상	중심지역
후안 라바예	unitario	liberal	BA
로사스	autonomista /federal	liberal	BA
우르키사	federal	caudillista	Provincia
사르미엔토	unitario	liberal	BA
알베르디	unitario-〉federal	liberal	Provincia (절충)
미트레	unitario	nacionalista	

(출처: 웹글 "Partidos políticos argentinos (1810-1900)"를 바탕으로 본고 작성)

1. 사르미엔토의 문명론

19세기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꼽히는 도밍고 F. 사르미엔토는 문명/야만의 이분법을 통해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주의자이자 문명론자이자 대표적인 통합파이다. 아르헨티나 사상사의 고전으로 꼽히는『파쿤도. 문명과 야만』을 통해 아르헨티나 국가조직화 시기의 논제를 제기하고 근대공화국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세 정책은 문명화정책, 유럽이민정책, 그리고 공교육정책이다. 통합당 대통령을 역임(1868~1874)하기도 한 그는 이러한 정책들을 스스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먼저『파쿤도. 문명과 야만』이 집필된 배경을 통해 사르미엔토의 사상을 살펴보자. 산후안 주 출신의 그는 반 로사스 노선의 청년저항집단인 37세대[9]의 일원이었다. 로사스의 폭정과 탄압이 심해지자 사르미엔토는 칠레로 망명해 있었다. 그리고 1845년 5월, 산티아고의 일간지『엘 프로그레소 El progreso』지에『파쿤도. 문명과 야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곧이어 이를 단행본으로 묶었는데, 단행본의 제목은『문명과 야만. 후안 파쿤도 키로가의 삶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물리적 양상, 관습, 습속 Civilización y barbarie.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y aspecto físico, costumbres y hábitos de la República Argentina』이다. 이후 1874년 파리에서 간행된 제4판에서『파쿤도. 문명과 야만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이라는 현재의 제목으로 수정했다.[10]

---

9) 37세대는 1837년 6월 마르코 사스트레 문학살롱(Marco Sastre el Salón Literario) 서점에 모인 젊은 작가들이 만든 그룹이다. 이 그룹의 정식 명칭은 '아르헨티나청년세대연합(Asociación de la Joven Generación Argentina)'이었으나 통상 '37세대'라는 명칭이 더 흔히 사용된다. 알베르디 외에 사르미엔토, 에스테반 에체베리아, 후안 마리아 구티에레스 등이 포함된다. Romero(1996), op. cit., p.84.

10) Altamirano, Carlos(1993), "Introducción," in Domingo F. Sarmiento, *Facundo,* Buenos Aires: Espasa Calpe, pp.7-38.

이 책의 집필은 산후안 주의 카우디요였던 파쿤도 키로가의 전기를 그려냄으로써 아르헨티나의 문명 대 야만의 대립, 로사스 정권의 폭정, 카우디요 정치의 본질 등을 알리고, 나아가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기획안을 유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초판을 참조하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장부터 4장에서는 평원과 도시를 대조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의 과거 유산과 전반적인 현실을 그리고 있다. 5장부터 13장은 파쿤도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 파쿤도의 삶과 기질 속에 반영된 폭정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14장과 15장은 칠레로 망명했던 '오월회', 곧 37세대의 정치적 노선을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사르미엔토의 논제의 핵심은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이다. 즉, 그는 독립 직후 19세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문명과 야만의 구도로 설명한다. 문명은 유럽적인 사상, 교양과 교육, 도시 등으로 대표되고, 그에 반해 야만은 가우초와 카우디요, 팜파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산후안 주의 카우디요 파쿤도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우디요 로사스를 야만의 결정체로 비판의 대상이다. 이 두 카우디요에 대한 비판의 장에는 사르미엔토의 통합파적 입장이 표현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사르미엔토에게 연방파의 수장인 로사스는 야만의 화신으로 그려진다. 특히 사르미엔토는 로사스의 연방주의를 일컬어 'federalismo bárbaro'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사르미엔토는 이민자 국가인 미국을 모델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유럽이민정책을 주장했고, 교육이 문명화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여겨 공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유럽인 이민정책은 알베르디 역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영토에 적은 인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문명화된 유럽인의 유입을 통해 유럽적인 문명화된 국가상이 정비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공교육정책은 그 스스로 교육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사르미엔토가 이룬 과업이기도 했다. 무상 공교육은 아르헨티나 헌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낮은 문맹률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실증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르미엔토의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과 문명화론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통틀어 여러 신생 공화국들의 국가수립 향방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사르미엔토의 사상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자유주의적 근대국가 건설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동시에 크리오요나 메스티소 중심의 민족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우초나 토착 원주민을 배제시키는 행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알베르디의 연방주의와 유럽인이민정책

이 장에서는 알베르디의 국가수립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사상의 집대성은『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정치조직화의 기초와 출발점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이는 1853년 헌법의 초안이 되었다. 따라서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눠, 먼저 1853년 헌법으로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1853년 헌법에 반영된 알베르디의 주요사상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알베르디의 사상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룰 내용은 연방주의와 유럽인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1853년 헌법의 배경

카세로스 전투를 통해 로사스의 독재가 종결되자 1824년 제헌의회 이후 처음으로 비로소 다시 제헌의회가 소집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1852년 5월 31일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산니콜라스 협약이 맺어졌다. 여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제외한 13개 지방주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1852년 9월 11일 우르키사의 연방주의에 대한 반란 이후 아르헨티나연방(Confederación Argentina)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산니콜라스 협약에서는 먼저 우르키사가 광범위한 권력을 누리는 아르헨티나연방의 임시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산타페의 제헌의회 소집이 결정되었다.

산타페의 제헌의회는 1852년 11월 20일 개최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대표자는 제헌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르키사는 의회연설을 통해 아르헨티나연방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다. 먼저 양립 불가능한 사상들이 아니라 타협 가능한 공식들에 대해 논의할 것, 다음으로 도출된 합의를 헌법에 정착시켜 무정부와 전제주의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로사스 독재기에 겪은 무정부주의와 전제주의라는 '민족을 집어삼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우르키사의 발의는 과거의 연방파/통합파의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정쟁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국가조직화를 앞당겨 공화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다.

산타페 제헌의회의 결실은 1853년 헌법으로 나타났다. 이 헌법의 초안은 알베르디가 칠레 망명지에서 쓴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정치조직화의 기초와 출발점』이다. 그밖에도 1819년 및 1826년 아르헨티나 헌법, 미국 헌법, 그리고 1831년 연방조약 등을 선례로 참조하였고, 당시 하원의원이던 벤하민 고로스티아가와 후안 마리아 구티에레스가 문안을 작성했다. 알베르디의 이상을 직접적인 바탕으로 삼아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발

전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헌법조문이 마련되었고, 위원회의 최종 안은 14대 4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1853년 5월 1일 이 헌법은 승인되어 5월 25일 선포되었다.

1853년 헌법의 서문에서는 헌법의 기반이 된 글들과 헌법 창안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선언, 권리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르헨티나는 대의제, 공화제, 연방제국가라는 내용, 공식국교가 가톨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비롯한 국가조직의 형태들을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국가위기 시에는 연방정부가 절대적 권리를 갖고 지방주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아르헨티나연방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레리오스 주의 파라나를 국가의 임시수도를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아르헨티나연방을 다스릴 초대 대통령에 우르키사를 임명하고 있다.

내륙의 지방 주들은 이 헌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지방 주들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고 있고,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다시 아르헨티나연방에 합병되어 1853년 헌법을 승인한 것은 1859년 세페다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 헌법 조문의 일부가 수정되고 난 뒤였다.

2) 알베르디의 연방주의와 유럽인이민정책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알베르디의 국가조직화 사상의 핵심은『아르헨티나공화국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바탕과 출발점』에 나타나 있다. 그

는 1852년 로사스가 우르키사에게 패배하자 공화국 수립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인식 하에 이 저작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표명했다.

알베르디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연방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이다. 그는 먼저 식민시대와 혁명기의 통합주의 선례들, 그리고 연방주의의 선례들을 차례로 거론한다. 그러고 나서 이전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에 필요한 것은 지방 주들의 자유와 중앙정부의 특권을 동시에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혼합적인 체제'[11]의 도출이라고 보았다. 14장에서의 '통합적 연방' 또는 '연방적 통합'이나 17장의 '혼합체제'는 동일한 내용을 의미한다.

> [...] la República Argentina es tan incapaz de una pura y simple federación, como de una pura y simple unidad. Necesita, por circunstancias, de una federación unitaria o de una unidad federativa (Alberdi 1852, Cap.14).

> [...] un sistema mixto que abrace y concilie las libertades de cada provincia y las prerrogativas de toda la Nación, como solución inevitable y única, mediante la combinación de los dos grandes términos del problema argentino: la Nación y la Provincia(Alberdi 1852, Cap.17).

여기서 알베르디의 사상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초창기 관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통합적,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였다. 사르미엔토 등과 더불어 37세대를 만들어 활동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칠레 망명 초기 시절에도 이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점을 상기하자면

11) Hernández도 알베르디가 말한 '혼합체제'의 종합적인 성격을 강조한다(Hernández 2003, 4)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바탕과 출발점”에 드러난 연방주의로의 전환은 커다란 변화이다.

알베르디의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로사스 독재에 반기를 들며 일어선 우르키사에게서 실마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알베르디는 로사스 독재가 폭정과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1852년 우르키사가 로사스의 아르헨티나연방에 봉기하여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르키사는 엔트레리오스의 주지사였고, 엔트레리오스는 아르헨티나연방에 포함된 13개 주의 하나였다. 엔트레리오스 주의 지주 출신인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이자 아르헨티나연방의 수장이었던 로사스가 겉으로는 연방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중앙집권주의를 도모하며 억압적인 독재정치를 펼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만 국한된 로사스의 자치주의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항해와 교역의 이득을 배타적으로 누렸고, 반대로 내륙 주들은 경제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가운데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알베르디는 망명지에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더욱 분석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였던 그는 라플라타 부왕령이라는 식민지시기에 지방주의 중심도시들이 행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그 지방들이 누려왔던 정치적 · 행정적 · 군사적 · 경제적 자립성은 독립을 달성한 현재에도 존속해 있음을 인식한다. 독립된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을 포함한 37세대청년들이 추구해온 통합주의 정부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알베르디가 앞에서 인용한 혼합체제를 구상하게 된 것은 통합주의와 연방주의 모두 식민지 시기와 혁명기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전통

이 세워져 있으므로 그 전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에 따라 양분된 이념을 어느 한 노선만을 따라 헌정이 수립된다면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정쟁의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 주의 자유와 국가 전체의 특권을 감싸안고 조화시키는 혼합체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알베르디의 이러한 결론은 우르키사라는 연방주의자를 만남으로써 헌정수립에 반영되었다. 우르키사가 로사스의 아르헨티나연방을 패퇴시키지 못했다면 알베르디의 사상은 이론과 주장에 그쳤을지도 모른다. 알베르디와 우르키사의 조합은 아르헨티나연방공화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알베르디는 일차적으로는 오랜 로사스 독재의 종말에서, 두 번째로는 그 역시 연방주의자이면서 로사스에게 반기를 든 우르키사에게서 공화국수립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카세로스 전투에서 로사스가 패배하여 축출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알베르디는 지금까지 사유와 분석을 통해 구상해오던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비전을 집대성하여 제안의 말과 함께 우르키사에게 보낸다. 그 글이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바탕과 출발점』이고, 곧 1853년 헌법의 초안이었다. 우르키사는 텍스트에서 알베르디의 애국심과 열성을 높이 사게 되었고, 또한 연방주의가 실현가능한 모델이자 불가결한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알베르디의 법학자적 전문성을 수용한다.

그렇게 하여 아르헨티나 현행 법제의 기초가 된 1853년 헌법은 미국식 연방제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대표적인 유럽화된 아메리카 국가로서 아르헨티나에게 성공적인 연방주의 모델이기도 했다. 1853년 헌법에 반영된 연방주의의 주요내용은 삼권분립의 공화국 체제, 지방 주

들의 자율성 보장, 강력한 행정부를 갖춘 연방정부, 양원제를 통한 정부 권력의 제한 등이었다. 양원제는 지방 주들 간에 공정성을 기하고 인구 대의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한편 1853년 헌법이 지향하는 미국식 아메리카 국가의 모델을 위해서는 인구구성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근대국가수립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기된 것이 유럽인 이민정책이었다. 그리고 알베르디의 저작을 바탕으로 작성된 1853년의 헌법에 따라 1854년부터 아르헨티나는 이민정책을 통해 유럽인이민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민정책은 두 가지 이유에서 채택되었다. 첫번째는 광활한 아르헨티나 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구 구성성분을 변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알베르디는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라플라타 강 유역의 팜파를 제외하면 본래부터 광활한 황무지에 가까운 곳이고, 이 지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메리카에서 통치란 거주시키는 것”(Gobernar en América es poblar)이라는 그의 유명한 명제는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1853년 헌법 25조의 구절이다. 토지를 개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학문과 예술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민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l Gobierno federal fomentará la inmigración europea; y no podrá restringir, limitar ni gravar con impuesto alguno la entrada en el territorio argentino de los extranjeros que traigan por objeto labrar la tierra, mejorar las industrias, e introducir y enseñar las ciencias y las artes.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인 이민’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알베르디는 이민자들이 유럽인이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유럽인 이민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당시 아르헨티나인의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다. 즉, 알베르디도 사르미엔토와 마찬가지로 원주민과 메스티소 혈통의 인구구성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리라고 본 것이다. 만일 이민자들이 유럽인이라면 아르헨티나의 인구구성을 상당히 유럽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인이민을 주요 축으로 고려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도 유럽인 이민자들이 세운 공화국이었기에 성공적으로 문명화가 가능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알베르디를 비롯한 제헌헌법 제정자들이 말하는 '거주시키는 것'이란 결국 앵글로색슨 계와 독일 계 유럽인의 이민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알베르디가 1879년에 쓴 "통치는 거주시키는 것"(Gobernar es poblar)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자.

> Poblar es civilizar cuando se puebla con gente civilizada, es decir, con pobladores de la **Europa civilizada**. Por eso he dicho en la Constitución que el gobierno debe fomentar la **inmigración europea**. Pero poblar no es civilizar, sino embrutecer, cuando se puebla con chinos y con indios de Asia y con negros de África. Poblar es apestar, corromper, degenerar, envenenar un país, cuando en vez de poblarlo **con la flor de la población trabajadora de Europa**, se le puebla con la basura de la Europa atrasada o menos culta. Porque hay Europa y Europa, conviene no olvidarlo; y se puede estar dentro del texto liberal de la Constitución, que ordena fomentar la inmigración europea, sin dejar por eso de arruinar un país de Sud América con sólo poblarlo de inmigrados europeos.

이 인용문에서는 새로이 들여올 이민자는 유럽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설명되고 강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지에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만으로는 문명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민정책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명화된 사람'이 이민을 와야 문명화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53년 헌법에 따라 1854년 해외이주공사 설치를 통해 본격화된 아르헨티나 유럽인이민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민정책은 19세기 말이면 아르헨티나의 인구의 급증을 가져와 도시들이 팽창, 성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또한 토착인과 이민자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유럽인이민정책의 공과 실은 이 논문의 주제는 아니므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알베르디의 국가수립 주요정책에 대한 고찰을 마치면서 다시 정리하자면, 카세로스 전투에서는 로사스가 패배함으로써 우르키사가 아르헨티나연방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우르키사는 알베르디의 헌법 기초안에 의거하여 1853년 연방헌법을 선포했고, 이는 아르헨티나에 연방제를 뿌리내리는 데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로사스 독재의 종말의 수혜가 아르헨티나연방의 정착으로만 귀결된 것은 아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합당도 지방정부를 조직화하고 자체적인 헌법을 제정하는 등 정비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1861년 파본 전투에서 나타났는데, 이 전투에서 중앙집권파인 미트레가 이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군은 우르키사의 아르헨티나연방 군을 물리쳤다. 파본 전투의 결과 통합파와 연방파의 오랜 정쟁은 완전히 끝나고, 아르헨티나연방도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1862년 미트레가 대통령이 된 이래 아르헨티나공화국은 중앙집권파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3년 헌법이 정한 아르헨티나가 연방국가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방국가임을 더욱 공고

히 하는 것은 188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연방수도로 제정한 사실이다. 이로써 연방파는 중앙권력에서는 멀어졌지만, 알베르디를 비롯한 연방주의자들은 우르키사의 아르헨티나연방 시기를 통해 아르헨티나공화국에 연방제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혁명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국가조직화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지체되게 한 주요한 요소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이었다. 논문에서는 먼저 두 노선(또는 정당)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쟁의 얽힘과 함께 더욱 가시화된 두 노선이 대립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르헨티나 공화국수립의 향방성에 긴밀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주요 통치원리가 된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증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파의 핵심세력이었던 도밍고 F. 사르미엔토의 문명/야만의 이분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유주의적 연방파'라고 지칭되는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의 사상을 아르헨티나 식 연방주의와 유럽인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이 제기한 정책들은 19세기를 관통하여 아르헨티나를 분열시켰던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표격이었다. 자유주의자이자 유럽이민정책을 지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르미엔토의 사상은 미트레와 같은 중앙집권주의자의 지지를 받았고, 알베르디의 지향점은 우르키사와 같은 연방주의자의 지지를 입었다. 그 결과 이 정책들은 군인이자 행정가였던 우르키사와 미트레에 의해 국가수립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대 아르헨티나의 특성을 결정짓고

있다. 즉, 사르미엔토의 문명화론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발전으로 귀결되었고, 그의 공교육사상은 고등교육도 국립 교육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한편 알베르디의 연방주의는 1853년 헌법에 반영된 이래 변함없이 이어져 '연방공화국 아르헨티나'라는 근간을 이루게 했다. 또한 그의 유럽인이민정책은 현대 아르헨티나가 사회문화적으로, 인구상으로도 유럽적인 색채를 갖게 되는 기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민만식 · 강석영 · 최영수(1993), 『중남미사』, 민음사.

Alberdi, Juan Bautista(1852),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Argentina,* www.hacer.org/pdf/Bases.pdf (2009.11.13).

_____(1881), *La República Argentina Consolidada en 1880 con la Ciudad de Buenos Aires por Capital.* Buenos Aires: Imp. de P.E. Coni, openlibrary.org/works/OL1127111W (2009.11.21).

Chiaramonte, José Carlos(1993), "El federalismo argentino en la primera mitad del siglo XIX", in Marcello Carmagnani(coord.), *Federalismos Latinoamericanos: México, Brasil, Argentin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FCE, pp.81-132.

Cicardo, María Candelaria, "Las bases Juan Bautista Alberdi. Cuestionario y guía de lectura," www.monografias.com/trabajos11/tpdoscon/tpdoscon.shtml (2009.11.25).

Donghi, Tyulio Halperín(ed.)(1980), *Proyecto y Construcción de una*

Nación. (Argentina 1846-1880), Caracas: Ayacucho.

Floria, Carlos Alberto y César A. García Belsunce(1992), *Historia de los Argentinos. Tomo I, II,* Buenos Aires: Edic. Larousse Argentina.

Fradkin, Raúl, Juan Carlos Graravaglia(2009), *La Argentina Colonial. El Río de la Plata entre los Siglos XVI y XIX,* Buenos Aires: Siglo XXI.

Goldman, Noemí(1993), "Legalidad y legitimidad en el caudillismo: Juan Facundo Quiroga y La Rioja en el Interior Rioplatense (1810-1835)", *Boletín del Instituto de Historia Argentina y Americana*, Tercera serie, núm. 7, 1er semestre de 1993, pp.31-58.

Gutman, Margarita y José Enrique Hardoy(2007), *Buenos Aires 1536-2006. Historia Urbana del Area Metropolitana,* Buenos Aires: Ediciones Infinito.

Hernández, Antonio María(2003), "El federalismo en Alberdi y la constitución nacional de 1853 y 1860", www.acaderc.unc.org.ar (2010.01.10).

_____(Introd.)(2009), *Aspectos Históricos y Políticos del Federalismo Argentino*, Córdoba: Instituto de Federalismo, Academia Nacional de Derecho y Ciencias Sociales de Córdoba.

Nouzeilles, Gabriela and Graciela Montaldo(eds.)(2002), *The Argentina Reader. History, Culture, Polit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Riva, Vanina, "Historia política argentina", www.monografias.com/trabajos80/historia-politica-agentina/historia-politica-agentina2.shtml (2009.12.10).

Romero, José Luis(1976; 1984), *Latinoamérica: las Ciudades y las Ideas,*

Buenos Aires: Siglo XXI.

_____(1996), *Breve Historia de la Argentina,* Buenos Aires: FCE.

Sarmiento, Domingo F.(1993), *Facundo*, Introducción de Carlos Altamirano(1956), Buenos Aires: Espasa Calpe.

Scobie, James(1963), *Argentina: A City and a 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vampa, Maristella(1994), *El Dilema Argentino: Civilización o Barbarie,* Buenos Aires: El Cielo por Asalto.

"La batalla de Pavón", www.argentina-rree.com/5/5-031.htm (2009.11.25)

"Liberal thinkers. Juan Bautista Alberdi", www.liberal-international.org/editorial.asp?ia_id=550 (2009.11.25).

"Partidos políticos argentinos (1810-1900)", api.ning.com/files/iWtvLX3rxUSZ5zYEy2ZpAUiEUM8MBbSTRlIDrjf0*9wTThi56gP5rWHwUvJ4s6wltrzCK2LTpVJEATQHIJWj-M76F17q6t7I/PARTIDOSPOLITICOSARGENTINOS.pdf (2011.04.12).

"Unitarios y federales", www.portalplanetasedna.com.ar/federales_unitarios.htm (2010.01.10).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